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8면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대안 마련을”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주민들 소외감 심각” 주장

강북구의회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이 지역구를 지나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다며 정거장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7월5일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동북선 경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역 총연장 13.4km로 잇는 노선이며, 개통 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되고,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등 9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

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만 3천여명이 예상되어 출·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의 도로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계획에 잡혀 있는 정류장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지난 3일 열린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설명을 통해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



구본승의원 허광행의원 최치효의원

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07정거장(미아사거리)의 위치가 106정거장과 108정거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역간 간격의 불균형이 생기고 정거장 출입구 2곳이 성북구 쪽으로만 설치될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권 일대의 주요 상권으로 평일 일평균 3만 7천여명이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로를 신호를 받아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 동문)의 위치는 변동 지역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 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이 주거 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지만,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은 변동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설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 ▲서울시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미아사거리) 및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만약에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정거장 위치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에게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제안설명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를 주민의 편익 위해 변경해야”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변3동, 송중동, 미아동)

구본승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허광행, 최치효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다.

구 의원은 2019년 착공 예정인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역 총연장 13.4km로 잇는 노선이다. 그동안 지하철이라고는 마을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접할 수 있는 4호선 밖에 없었던 강북구 지역 주민에게는 ‘가뭇에 단비’ 와도 같은 교통수단이며, 이용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개선시켜 교통 편리성을 증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



▲ 구본승 의원.

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107정거장(미아사거리)의 위치가 106정거장과 108정거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역간 간격의 불균형이 생기고 정거장 출입구 2곳이 성북구 쪽으로만 설치될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권 일대의 주요 상권으로 평일 일평균 3만 7천여 명이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로를 신호를 받아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 동문)의 위치는 교통 소외 지역인 변동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변동 지역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 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 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이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은 변동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본승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미아사거리) 및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구본승·최치효·허광행, “동북선경전철 강북주민 소외감 느껴”



▲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를 발표하고 있는 구본승 구의원.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7월 5일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의 시행을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동북선경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그동안 지하철이라고는 마을버스를 한번 길아타야 접할 수 있는 4호선 밖에 없었던 강북구 지역 주민에게는 '가뭇에 단비' 와도 같은 교통수단이며, 이용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개선시켜 교통 편리성을 증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107정거장(미아사거리)의 위치가 106정거장과 108정거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역간 간격의 불균형이 생기고 정거장 출입구 2곳이 성북구 쪽으로만 설치될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권 일대의 주요 상권으로 평일 일평균 3만 7천여명이 이용하는 미아사거리 지역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로를 신호를 받아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 동문)의 위치는 교통 소외 지역인 변동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변동 지역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이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은 변동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강북구는 지난 7월경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 이용주민의 환승 용이성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경전철 이용의 편의성,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확보하고자 107정거장(미아사거리)과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동문삼거리)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정거장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의 효율성 저하, 운행 시간의 증가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 및 기존 정거장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사유로 이전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설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동북선과 인접한 자치구 주민들에게 소외감 없이 최대한 공평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거장 위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교통 소외지역으로 불편함이 컸던 지역거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이용객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도보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미아사거리) 및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의 정거장 위치를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에게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강북구 주민들 소외감 심각" 주장



구본승

허광행

최치효

제안설명에 나선 구본승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역 총연장 13.4km로 잇는 노선이며, 개통 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

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되고,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등 9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만 3천여 명이 예상되어 출·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의 교통 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되어 도로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어 "동북선 도시철도는 그동안 지하철이라고는 마을버스를 한번 길아타

야 접할 수 있는 4호선 밖에 없었던 강북구 지역 주민에게는 '가뭇에 단비' 와도 같은 교통수단이며, 이용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개선시켜 교통 편리성을 증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동 지역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이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지만,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은 변동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승 의원, 허광행 의원, 최치효 의원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설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미아사거리) 및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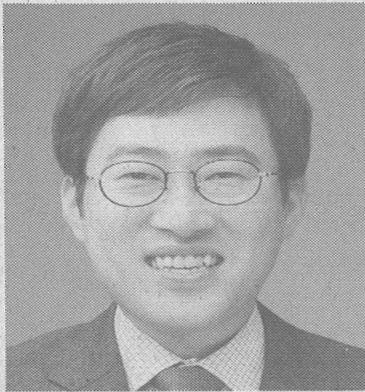
한편 강북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경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용주민의 환승 용이성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경전철 이용의 편의성,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확보하고자 107정거장(미아사거리)과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동문삼거리)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정거장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의 효율성 저하, 운행 시간의 증가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 및 기존 정거장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사유로 이전이 어려움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대안 마련해야’ 강조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왼쪽부터)

강북구의회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이 지역구를 지나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다며 정거장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5일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동북선경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역 총연장 13.4km로 있는 노선이며, 개통 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

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되고,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등 9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만 3천여 명이 예상되어 출·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의 교통 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되어 도로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계획에 잡혀 있는 정류장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지난 3일 열린 제 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본승·허광행·최치효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설명을 통해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07정거장(미아사거리)의 위치가 106정거장과 108정거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역간 간격의 불균형이 생기고 정거장 출입구 2곳이 성북구 쪽으로만 설치될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권 일대의 주요 상권으로 평일 일 평균 3만 7천여 명이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로를 신호를 받아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예

상된다는 것이다.

또,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 동문)의 위치는 번동 지역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 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이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지만,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은 번동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설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 ▲서울시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미아사거리) 및 109정거장(북서울꿈의 숲)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만약에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정거장 위치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에게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